

한미(韓美) 신문의 의견기사에 나타난 한국 기자와 미국 기자의 사고습관 차이

박재영*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교수)

이완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노성중***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석사)

이 연구는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의견 기사를 비교하여 한국 기자와 미국 기자가 동일한 이슈를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알아보았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대별했던 일부 언론학자들의 주장과 함께, 동서양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 사회구조의 차이를 낳고 두 지역에서 사회화과정을 경험한 개인들의 상이한 사고습관을 주조한다는 문화심리학적 논지를 이론 틀로 사용했다. 분석결과, 한미 신문 의견기사의 차이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논지의 설명력은 제한적이었고, 이슈의 속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는 결과는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의 취재원 유형, 취재원 제시방식, 서술방식, 사건발생의 예측 가능성(후견지명 효과) 그리고 복핵 이슈의 사건발생 예측 가능성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슈 중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이, 유목 중에서는 사건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가장 근접했다. 이 연구는 뉴스를 저널리즘 규범 측면에서 파악했던 시간의 확포와 기자의 인지 과정에 주목하는 문화심리학적 학풍이 혼합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또 서양 기자들은 동양인의 종합적 사고습관을, 동양 기자들은 서양인의 분석적 사고습관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했다.

key words : 서양 개인주의와 동양 집단주의, 사고습관, 문화심리학, 기본적 귀인 오류, 사후과잉확신 편향, 의견기사, 한미 신문비교

* jaeyoungp@korea.ac.kr, 교신저자

** ws895676@yahoo.co.kr

*** TalkToRoh@gmail.com

1. 연구 취지

저널리즘 연구자들의 오랜 관심사 중 하나는 저널리즘의 역사나 전통이 상이한 환경에서도 뉴스는 비슷한지, 다르다면 왜 다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Gregory & Miller, 1998). 뉴스의 매체 간 또는 국가 간 비교연구는 이런 관심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의 뉴스와 저널리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한미 언론은 사실에 기초한 보도, 사실정보 수집관행, 사실기사와 의견기사의 물리적 구분, 객관성, 언론윤리,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기자 인식 등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비슷하다(이재경, 2007; Kim, 2001; Logan, Park, & Shin, 2004). 그러나 저널리즘이 구현되는 양태는 다소 다르다. 즉 한미 뉴스는 인용과 취재원 적시, 기사작성 방식과 문체, 뉴스 프레임, 윤리적 실천, 저널리즘 스탠더드와 뉴스 품질 면에서 상이하다(김수정 · 조은희, 2005; 김재영 · 양선희, 2007; 남재일 · 박재영, 2007; 박재영 · 이완수, 2007a, 2007b; 이완수 · 심재용 · 심재철, 2008; 이재경, 2006, 2007). 국내 선행연구는 이런 차이의 원인을 기자와 언론조직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전자는 기자의 뉴스 가치 인식, 취재관행, 교육적 배경, 윤리적 민감도, 프로페셔널리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후자는 출입처제도, 취재시스템, 인력운용, 뉴스 생산과정, 뉴스 룸의 문화, 언론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 간 뉴스의 차이, 나아가 뉴스의 일반적인 변이를 기자와 언론조직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미국 학자들도 마찬가지다(Shoemaker & Reese, 1996 참조).

하지만 이런 전통적 접근방식은 기사작성 주체인 기자 개인의 판단과 사고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 예로, 스톡킹과 그로스(Stocking & Gross, 1989)는 대다수 학자들이 기자와 언론조직에 치중하여 뉴스의 편향이나 왜곡을 설명하는 바람에 정작 “기자와 에디터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간과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해 별로 알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3쪽). 이들은 뉴스 생산과정(기사 작성)은 기자나 언론조직의 직업적, 관행적 한계뿐 아니라 정보처리자라는 인간으로서 기자가 갖는 인지적 한계에 의해서도 제약받는다라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이론적 관점의 핵심은 심리학자나 인지과학자가 발전시켜온 ‘인지과정(cognitive processing)’ 개념, 즉 세상에 대한 기자의 판단과 해석을 제약하는 ‘다양한 습관적 사고방식(a variety of routine ways of thinking)’¹⁾이다(pp. 3~4). 예를 들어, 스톡킹과 그로스는 납치나 불륜 사건뿐 아니라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은 국가적 이슈를 다룰 때에도 미국 언론은 행위자의 개인적, 성격적 특성을 중심으로 그 원인을 보도함으로써 행위자가 처했던 상황적 요인을 무시하는 기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자들이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사고습관을 갖고 있다면, 한국 기자들은 어떨까? 한국과 미국 기자들이 기본적 귀인오류를 범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스톡킹과 그로스는 기자들의 사

1) 이탤릭체는 원문 그대로다. 스톡킹과 그로스가 ‘routine’을 이탤릭체로 표기한 것은 그것이 기자의 직업적 관행이라는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업적 관행에 앞서는,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습관’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고습관을 국가 간 비교로까지 확장하여 논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런 비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 틀이 필요하다.

스토킹과 그로스(Stocking & Gross, 1989)가 강조했던 기자들의 ‘사전 인식(initial beliefs)’ 개념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p. 4). “[기자들은] 객관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조차 자신의 사전 인식을 확인하는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Stocking & Gross, 1989, 4쪽). 일찍이 리프만(Lippmann, 1922)이 지적했듯이, 기자들도 결국 “뭔가를 보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보는” 보편적인 인간이다(p. 81). 기자들의 사전 인식은 일반인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은 “기자들의 사전 인식은 다른가, 다르다면 왜 그런가?”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스톡킹과 그로스의 문제 의식보다 더 근본적이다. 기자들의 사전 인식을 낳게 한 배경 또는 사전 인식을 갖게 한 과정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이나 문화 간 비교를 상정하면, 이 의문은 “인간의 사전 인식은 국가나 문화에 따라 다른가?”로 귀결된다.

이 연구는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문화심리학(cultural psychology) 이론 틀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다. 문화심리학은 동양과 서양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이 사회구조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두 지역에서 사회화 과정을 겪은 개인들의 상이한 사고습관을 주조한다는 진화론적 설명을 제안한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킨 연구는 있었다. 일부 광고연구는 한국과 미국(또는 동양과 서양) 광고의 내용을 비교하여 전자에서 집단주의를, 후자에서 개인주의를 개념화했다(Cho, et al., 1999; Cho & Cheon, 2005; Han & Shavitt, 1994 참조). 몇몇 저널리즘 학자들도 동서양의 언론시스템을 비교하면서 집단주의-개인주의 틀을 동원했다(Winfield, Mizuno, & Beaudoin, 2000). 하지만 이런 포괄적인 대비 틀을 여러 하위차원으로 나누어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습관 차이를 체계화한 것은 문화심리학이다. 문화심리학 이론을 집대성한 니스벳(Nisbett, 2003)은 다수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인간이 이슈(또는 사건)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서양인의 분석적 사고와 동양인의 종합적 사고로, 이슈의 원인을 설명하는 패턴을 서양인의 개인 중심적 사고와 동양인의 상황 중심적 사고로, 논리적 추론방식을 서양인의 형식 논리와 동양인의 변증법적 논증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이슈의 원인 판단에 있어서 서양인은 개인에게 귀인(歸因)하여 기본적 귀인 오류를 자주 범하지만 동양인은 상황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슈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서양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양자택일의 단일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동양인은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또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 즉 처음부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는 경향을 더 자주 보인다. 기본적 귀인 오류나 사후과잉확신 편향과 같은 인간의 판단과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은 저널리즘 연구에서 별로 중시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은 뉴스의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Shoemaker & Reese, 1996 참조).

그러나 문화심리학의 논지는 실험연구에 근거한 것이므로 뉴스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순히 기존 연구에 기대어 한국과 미국의 기사는 이슈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며, 그것은 상이한 문화 속에서 장기간 형성된 동양인과 서양인의 사고습관 차이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화심리학적 논지가 저

널리즘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한국 기자와 미국 기자의 사고습관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 저널리즘 영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동일한 이슈에 대한 한미 신문의 의견 기사를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 문화심리학적 논지가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동일한 판단과제(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기사 작성)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개인들(의견기사의 필자들)이 서로 다른 해석과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관찰되어야 한다. 상이한 이슈들을 분석할 경우에는 이슈의 주제가 너무 다양해지며, 그런 변이는 연구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가외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귀인패턴, 이슈에 대한 입장, 사건 발생의 예측가능성은 동일 이슈를 분석해야 차이점/유사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의견 기사를 분석한 것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의 사고습관이 사실기사보다 의견기사에서 더 잘 포착되기 때문이다. 또 육하원칙이나 역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기사작성의 일반적인 관행이 가외변인으로서 덜 개입되는 기사를 분석해야 문화심리학적 논지의 설명력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기사는 사실기사가 아니라 의견기사다.

2.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고습관 차이

1) 서양인의 개인 중심적 분석적 사고와 동양인의 집단 중심적 종합적 사고

언론의 시스템과 구현 양태가 언론이 작동하고 있는 문화에 종속된다는 주장은 널리 수용되어왔다(Gunaratne, 2000; Shoemaker & Reese, 1996; Siebert, Peterson, & Schramm, 1963). 특히 윈필드와 동료들(Winfield, Mizuno, & Beaudoin, 2000)은 서양 언론이 작동하는 문화를 개인주의, 동양 언론이 작동하는 문화를 집단주의로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pp. 325 ~ 335). 서양의 언론 개념은 자유, 개인의 중요성, 진실추구, 정부와 자본주의 권능에 대한 제약을 근거로 한다. 서양의 언론철학은 진실발견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상의 자유 시장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것인데, 이는 알 권리, 정부로부터 언론의 독립, 언론의 정부감시 개념과 상응한다. 동양의 문화는 공자의 유교사상에 기초하며 유교는 가족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위계질서 속의 사회적 조화를 추구한다. 유교는 가족, 공동체, 정부에 앞서는 개인을 상정하지 않는다. 동서양의 이런 차이는 진실인식에서 잘 나타난다. 서양에서 진실은 개인이 개별사실에 근거하여 가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개인적 지식으로 여겨지지만, 동양에서 진실은 위계질서의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되는 선형적, 절대적, 집단적 진실이다. 동양은 진실을 개인적 지식 이상으로 이해하며 위계질서에 역행하는 진실을 좀처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견과 같은 언론의 역할 개념은 생성되기 어려웠다.

문화심리학자들은 위와 같은 차이가 동서양 개인의 인지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구하여 서양인의 사고습관을 분석적 사고로, 동양인의 사고습관을 종합적 사고로 개념화했다(Nisbett, et al., 2001). 분석적 사고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상의 특징과

악에 집중하는 반면에 종합적 사고는 대상 자체보다 대상이 속한 상황이나 배경을 중시하고 대상과 배경의 관계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서양인과 동양인은 ‘자신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에 매우 다르게 답한다. 몇몇 연구(Bagley, 1995; Zax & Takahashi, 1967)에서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주로 성격형용사로 자신을 묘사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지만,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을 동원하여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자주 언급했다.²⁾ 또 커즌스(Cousins, 1989)는 일본 대학생들은 아무런 맥락이 없는 가운데 자신을 기술하게 하면 어려워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나 직장생활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주고 자신을 기술하게 하면 능숙하게 해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들은 맥락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더 잘 표현했다. 커즌스는 일본 대학생들은 가족이나 집단 중심의 생활문화에 영향을 받아 의존적 자아가 형성됐고, 미국 대학생들은 독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독립적 자아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좀 더 일반적인 예로서 행복에 대한 동서양의 개념차를 들 수 있다. 서양 사고습관의 근간인 그리스 철학은 행복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현대의 서양인 역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성취를 극대화하는 것을 행복한 삶으로 여긴다(Nisbett, 2003, p. 108). 그러나 동양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집단의 자율성이 중시되며 자기 자신보다 인간관계의 조화를 우선하므로, 성공과 성취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가문의 영광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Nisbett, 2003).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에서 보듯이, 한국사회도 ‘유별난 개인’보다 ‘집단에 어울리는 개인’을 중시해왔다. 이처럼 서양인은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여기지만, 동양인은 좀처럼 자신을 타인과 구분하여 생각하지 못한다(Markus & Kitayama, 1991; Oyserman & Markus, 1990).

분석적 - 종합적 사고는 홀(Hall, 1976)의 ‘저맥락(low context) - 고맥락(high context) 사회’ 개념과 유사하다. 서양에서 개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될 수 있으므로 이 집단(상황)에서 저 집단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는 ‘장(場) - 독립적(field-independent) 사고’로도 불린다(Witkin, et al., 1977). 반면에 동양인은 타자와 긴밀히 연결된 존재로서 주변 맥락에 영향을 받는 ‘장(場) - 의존적(field-dependent)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다. 서양인의 ‘선형적 관점’과 동양인의 ‘순환적 관점’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Nisbett, 2003, p. xiii).

서양인의 개인 중심적 분석적 사고와 동양인의 집단 중심적 종합적 사고를 뉴스에 적용하여 해석한 예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이런 관점이 뉴스연구에 필요하다고 강조한 학자는 있다. 박성희(2004)는 취재원 분석을 통해 『뉴욕타임스』는 실명의 개인 취재원을 쓰고 기관이

2) 신경과학자들도 뇌자기공명촬영(fMRI)을 통해 동아시아인들의 뇌는 자극물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인지과제에서 더 수월하게 작동했지만, 미국인들의 뇌는 개별 자극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지과제를 더 편안하게 처리했다고 보고했다(Hedden, et al., 2008).

나 단체를 잘 인용하지 않으며, 조선일보는 개인 취재원을 쓰더라도 이름 외의 정보(성, 나이, 직업, 직책 등)만 제공하는 준익명 방식이며, 『요미우리신문』은 단체 취재원을 많이 사용하며 개인 취재원을 익명으로 쓰는 관행이 조선일보보다 더 심하고 일관적이었다고 보고했다. 박성희는 “[요미우리]신문 지면에서 집단주의 문화 성향을 강하게 엿볼 수 있었다. 개인의 의견을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중시했으며, 따라서 개인 취재원의 활용도는 지극히 미미했다”고 적었다(96쪽). 박성희는 “저널리즘에서 문화적인 요소가 강력한 통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향후 관행을 개선하는 각종 노력에도 이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100쪽). 이견호(2007)도 1면 기사를 비교하여 한국 신문은 단체 취재원과 불특정 다수 취재원을, 미국 신문은 실명 개인 취재원을 많이 쓴다고 보고했다. 이견호와 박성희는 한미 신문을 비교하면서 각각 1면과 사회면에 실린, 주제가 상이한 사실기사들을 분석하여 일관된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한미 신문의 동일한 이슈에 대한 의견 기사를 비교하므로 선행연구와 차별적이다.

서양인은 개인으로서 자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적 이슈를 판단할 때에도 거기에 개입된 개인을 이슈의 중국적인 본질로 보는지가 이 연구의 관심거리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방법은 미국 신문 의견기사의 개인 취재원 활용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한국 신문 의견기사에서는 집단 취재원의 활용도를 통해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동양인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취재원이 제시되는 방식도 이와 관련된다. 개인을 주변 맥락과 분리시켜 사고하는 서양인의 사고습관에 따라 미국 신문이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지, 이와 반대로 한국 신문은 취재원을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서양인은 개인에 주목하고 동양인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중시하는데, 이런 사고습관에 따라 미국 신문 의견기사는 개인 중심으로 서술되고 한국 신문 의견기사는 공동체 중심으로 서술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은 기사가 이슈의 주요 주체인 특정 개인을 넘어서서 주체들 간의 관계나 사회, 국가, 국가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경우를 뜻한다.

2) 서양인의 개인 귀인(歸因)과 동양인의 상황 귀인

자아와 세계에 대한 동서양의 사고습관 차이는 이슈의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과정에 차이를 낳는다. 동양인은 세상을 여러 구성요소들이 얽혀있는 가변적인 장소로 파악하므로 사회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익숙하다. 서양인은 세상을 분석적이고 원자론적 시각으로 보므로 무언가를 관찰할 때 배경보다 대상 자체를 주목한다(Choi, Nisbett, & Norenzayan, 1999). 모든 대상의 본질은 주변 환경과 독립적으로 대상 내부의 속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서양인은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속성을 범주화하고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차이는 이슈의 원인을 진단하는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모리스와 펑(Morris & Peng, 1994)은 문화심리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뉴스를 통해 서양인

과 동양인의 귀인패턴 차이를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인의 미국인 살해와 미국인의 미국인 살해라는 별개의 두 사건을 미국 신문과 중국계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분석했다. 첫 번째 사건은 미국 대학의 중국인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불만을 품고 지도교수와 시민들을 난사하고 자살한 사건인데, 『뉴욕타임스』와 중국계 영자신문인 『월드저널(World Journal)』의 보도는 판이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인 범인의 심리적 약점(성격이 안 좋았다, 본성이 사악했다), 문제점(성공과 파괴에 몰두한 어두운 성격, 남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못 견디는 성향), 평소 태도(그는 원한 해결에 총이 제격이라고 믿었다)와 같은 개인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월드저널』은 그의 인간관계(지도교수와의 불화, 교내의 치열한 경쟁, 중국인 커뮤니티와의 단절), 중국 사회의 학력중시 압박, 미국 사회의 문제점(자유로운 총기구입)을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모리스와 펑은 이런 차이를 동서양의 문화차이에 따른 사고습관의 차이로 결론짓지는 않았다. 범인이 중국인이라는 가외변인 때문이었다. 이 사건 2주 후에 발생한 두 번째 사건은 해고를 당한 미국인 우편배달부가 우체국 상사와 동료, 고객들을 난사하고 자살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뉴욕타임스』는 미국인 범인의 개인적 특성(폭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계속 위협했다, 급한 성격이었다, 무술에 지나치게 빠져있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을 부각시켰고, 『월드저널』은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법한 상황 요인(그는 최근에 해고됐다, 상사가 그에게 적대적이었다, 최근의 유사 사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을 강조했다. 이 두 연구로만 보면, 귀인패턴은 문화적 차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서양인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때 주로 행위자의 기질이나 성격과 같은 내부적 요인을 사용하고, 동양인은 행위자 주변의 맥락정보를 감안하여 행위자와 그가 처한 상황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서 ‘기본적 귀인 오류’, 즉 행위를 유도한 상황의 힘을 무시하고 개인의 내적 요소만으로 행위의 원인을 설명하는 오류가 더 자주 나타난다(Choi & Nisbett, 1998, p. 950). 면접에서 긴장하는 후보자를 천성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 낮은 모임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을 원래 수줍은 사람으로, 지인들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제를 능숙하게 강연하는 사람을 타고난 연설가로 단정하는 것이 그 예다. 서양인은 행위의 원인을 파악할 때 인간의 내부 속성을 과대평가하고 상황 요인을 과소평가하여,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이런 오류는 미국 신문이 쿠바의 대미 정책기조를 국제정세보다는 카스트로 대통령 개인에 집중하여 분석하거나, 워터게이트 사건의 원인을 민주당의 공화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상황보다는 닉스 대통령의 개인적 요인에서 찾으려했던 것에서 확인된다(Jones & Harris, 1967; Stocking & Gross, 1989). 이는 기본적으로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인과적 설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Choi, Dalal, Kim-Prieto, & Park, 2003).

귀인패턴의 차이는 ‘사후가정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 즉 사건발생 전에 애초의 몇몇 요소가 바뀌었다더라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식의 사고과정에 차이를 낳는다. 모리스와 펑(Morris & Peng, 1994)은 위의 두 사건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미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에게 제시하고, “이 요인이 달랐더라면,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발생했을까?”라고 물었다(p. 963). 연구결과는 위의 기사 내용분석 결과와 일관적이

었다. 미국 대학생들은 살인자의 성격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중국 대학생들은 그의 주변관계와 같은 상황적 요인이 바뀌었더라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위의 논의를 이 연구에 적용하면, 동일한 이슈에 대한 의견기사에서 미국 신문은 이슈의 원인을 주요 행위자의 내부적 요인으로 돌리는지, 또 한국 신문은 행위자의 내부적 요인과 상황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돌리는지가 관심사다.

3) 서양인의 형식 논리와 동양인의 변증법적 논증

서양인은 ‘개인’을 귀인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슈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를 하나로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양인이 귀인의 대상으로 삼는 ‘상황’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므로 이슈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하나로 지정되기 어렵다. 이런 차이는 서양인과 동양인의 논리적 사고체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서양의 논리체계를 형성한 그리스인은 추상화를 통한 일반화에 집착했다. 일반화는 법칙과 원리에 기초하는데, 그리스인이 생각한 논리는 모순된 상황을 상정할 수 없는 형식논리였다. 그리스인은 한 주장이 다른 주장과 모순되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그릇된 것이어야 한다는 ‘비모순의 원리(principle of noncontradiction)’ 또는 대상은 상황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동일률(principle of identity)’을 신봉했다(Nisbett, 2003, pp. 176~177). 즉 한 명제와 그 명제의 부정은 절대로 동시에 참일 수 없듯이, A는 맥락에 관계없이 A이지 A이면서 A가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다.

동양인은 논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증법적 논증을 동원했다. 동양인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수의 주장들이 동시에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상이한 주장들을 함께 받아들였다. 사물은 맥락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종합적 원리’와 삶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변화의 원리’는 바로 그런 뜻이다(Nisbett, et al., 2001, pp. 106~153). 인간만사 새옹지마(人間萬事 塞翁之馬),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그리고 “네 말이 옳다, 네 말도 옳다”며 하녀들의 논박에 응대했던 황희 정승의 말에서도 한국인의 변증법적 사고습관을 엿볼 수 있다. 변증법적 논증은 ‘문제의 원인을 쌍방에서 찾으려는 양비(兩非)론적 견해’나 ‘대립하는 견해를 절충하려는 중재의 노력’을 낳는다(Nisbett, et al., 2001, p. 165). 국내 신문의 갈등이슈 보도에서 이해관계자 모두를 비판하거나 양시쌍비(兩是雙非, 양쪽 주장이 모두 이유 있어서 시비를 가리기 어려움)하는 경향은 흔히 발견된다(남재일, 2004). 이처럼 동양인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때 명백한 원리에 의존하기보다 상충하는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타협에 의한 해결책, 절충점 또는 중도적 입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서양인의 비변증법적 논증은 양자택일, 즉 둘 중의 한 쪽에 배타적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Basseches, 198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신문은 이슈의 원인이나 책임을 진단할 때 단일 주체를 대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쪽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는지, 또 한국 신문은 복수의 주체들을 겨냥하여 양비론적 판단을 내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후견지명 효과 또는 사후과잉확신 편향의 차이

사람들은 종종 선거나 판결,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내 그럴 줄 알았지(I knew it all along)”라는 결과론적 해석을 내린다. 이런 ‘후견지명 효과’ 또는 ‘사후과잉확신 편향’은 ‘처음부터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과잉 확신하여, 당연히 놀라워해야 할 예외적인 사건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지 않는 경향’이다(Choi & Nisbett, 2000, 890쪽). 예를 들어, 미국 신문은 레이건과 카터의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일 직전까지 박빙으로 예측하다가 레이건이 압승하자, 이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도했다(Leary, 1982). 사후과잉확신 편향은 미국인보다 한국인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Choi & Nisbett, 1998). 동양의 종합적 사고는 이슈는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대해서도 별로 놀라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신문이 대형 사고를 ‘예고된 인재(人災)’로 보도하는 것은 좋은 예다. 분석적 사고를 하는 서양인은 이슈의 결과와는 별개로 애초에 가졌던 심리적 표상만으로 이슈를 판단하므로 사후과잉확신 편향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슈발생이 예측 가능했다고 판단한 경우가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 중 어느 쪽에서 더 많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심리학적 논지가 적용될 수 있는 저널리즘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므로 분석대상 이슈를 다양화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 연구에는 한미 신문에 의견기사로 보도된 동일한 이슈이면서 통계분석에 적합할 정도로 충분히 많이 보도된 이슈가 필요했다. 최종 선택된 북핵 이슈,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미국 금융위기 등 3개 이슈는 각각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한미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대형 이슈다. 하지만 이슈의 속성은 상당히 다르다. 북핵 이슈와 미국 금융위기는 오랫동안 보도되면서 각종 담론을 양산한 국제적 이슈이지만,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은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된 미국의 국지적 사건이다. 또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은 사건의 주체를 조승희라는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지만, 북핵 이슈와 미국 금융위기는 복수의 주체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속성 차이를 감안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 연구문제 1: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취재원 유형(집단 취재원과 개인 취재원)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또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가?

- 연구문제 2 :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취재원 제시 방식(간접적 제시와 직접적 제시)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또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가?
- 연구문제 3 :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서술방식(공동체 중심과 개인 중심)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또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가?
- 연구문제 4 :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귀인패턴(개인내부 귀인, 상황 귀인, 개인내부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 귀인)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또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가?
- 연구문제 5 :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이슈에 대한 입장(긍정 또는 부정의 단일 입장과 양비론적 입장)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또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가?
- 연구문제 6 :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이슈발생 예측 가능성(예측 가능과 불가능)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또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가?

2) 연구방법

(1) 기사 표집방법

이 연구는 충분한 양의 의견 기사를 수집하기 위해 신문을 다양화하고 이슈별로 검색 기간을 달리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선택됐다. 미국 신문으로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유에스에이 투데이』, 『LA타임스』, 『보스턴글로브』, 『시카고 선 타임스(Chicago Sun Times)』,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전서(Seattle Post Intelligencer)』, 『리치몬드 타임스 디스패치(Richmond Times Dispatch)』가 선택됐다. 또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의 신문인 『로아노크 타임스(The Roanoke Times)』도 분석했다.

북핵은 해묵은 이슈이므로 이 연구의 기사수집일(2008년 10월 1일)부터 과거 15년간의 기사를 검색했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은 사건발생일(2007년 4월 16일)부터 기사수집일까지, 미국 금융위기는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2008년 9월 1일부터 기사수집일까지 검색했다. 기사는 카인즈(KINDS)와 렉시스넥시스(LexisNexis) 및 조선일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됐다. 한국 신문의 검색영역은 ‘사설’, ‘칼럼’, ‘기고’였으며 검색어는 ‘북핵’, ‘버지니아공대’, ‘미국 금융위기’였다. 미국 신문의 검색영역은 ‘OP-ED’였으며 검색어는 ‘North Korea nuclear’, ‘Virginia Tech massacre or Seung-Hui Cho’, ‘financial crisis’였다.

검색된 기사 328개 중에서 연구취지에 부적합한 61개를 제외하고 모두 267개가 분석됐다. 이들은 아래의 코딩유목 중 적어도 하나에 유효하게 코딩됐던 기사다. 신문별로는 『경향신문』 29개, 『국민일보』 3개, 『동아일보』 28개, 『문화일보』 2개, 『조선일보』 51개, 『한겨레』

13개, 『한국일보』 1개, 『뉴욕타임스』 37개, 『워싱턴포스트』 44개, 『유에스에이 투데이』 8개, 『LA타임스』 1개, 『보스턴글로브』 4개, 『시카고 선 타임스』 4개, 『시애틀 포스트 인텔리전서』 8개, 『리치몬드 타임스 디스패치』 10개, 『로아노크 타임스』 24개다. 『조선일보』 의견기사 중에는 영문 칼럼을 번역한 것이 2개 있었는데, 그 저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순수 서양인들이어서 미국 신문 쪽에 분류했다. 따라서 한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125개, 미국 신문은 142개다.

(2) 코딩유목

① 취재원 유형: 개인 취재원과 집단 취재원

사실기사에서 취재원은 기사에 인용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나 기관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의견기사는 사실기사처럼 취재정보만으로 작성되지는 않으므로 취재원을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기관’으로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개인 취재원은 기사에 언급된 행위자가 개인인 경우이며 집단 취재원은 복수의 사람들, 단체, 기관 등인 경우다. 이 유목은 기사에서 발견되는 모든 빈도를 코딩했다.

② 취재원 제시방식: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는 취재원을 실명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취재원이 누구인지 알 수 경우를 뜻한다. 간접적 제시는 취재원을 대명사로 지칭하거나 추상적으로 또는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다. 이 유목은 기사에서 발견되는 모든 빈도를 코딩했다.

위 두 유목³⁾은 뉴스분석에 자주 사용된 실명/익명 취재원 유목보다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주한 미국대사’는 실명/익명의 기준으로는 코딩하기 애매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취재원의 직접적 제시로 볼 수 있다. 실례를 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바마 후보’는 개인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6자회담 참가자’, ‘UN’, ‘미국 의회’는 집단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경우다. 반면에 ‘청와대 관계자’와 ‘한 외국

3) 취재원 유형과 제시방식 유목은 한미 신문에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문화심리학적 사고습관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한미 신문의 작업여건 차이(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의 수, 취재시간의 과다, 취재원 개별 접촉의 가능성)와 같은 가외변인의 영향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의견기사의 목적은 새로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므로, 논설위원이나 칼럼니스트는 취재원을 직접 접촉하는 별도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내용을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취재원을 동원하고, 그 재인용을 토대로 논지를 이끌어낸다. 이는 한국 신문은 물론이고 미국 신문 의견기사에서 취재원이 인용되는 형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미국 신문 의견기사에서 취재원의 발언은 거의 대부분 과거의 발언 또는 타 기사에 이미 소개된 발언이 재인용되거나 간접인용되는 형식이었다.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U.S. officials have estimated that North Korea could make 10 to 12 bombs...(Washington Post, 2007. 10. 7). President Bush echoed those sentiments when he said now was the time to help people get over their grieving...(Richmond Times Dispatch, 2007. 7. 27). Treasury Undersecretary Stuart Levey said Aug. 23, “of the risks in holding any North Korean accounts”(Washington Post, 2006. 10. 10). As Representative Barney Frank, chairman of the 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pointed out in an interview yesterday, the well-regulated commercial banking industry is faring well...(The Boston Globe, 2008. 9. 18).

인 한반도 전문가'는 개인 취재원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외환당국',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 '고위 당국자들'은 집단 취재원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다. 또 "Virginia Tech shooter Seung Hui Cho..."는 개인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풍부함과 경쟁이란 이중의 압제에 예속된 한 젊은이의..."는 개인 취재원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다. "Congress designed the National Instan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은 집단 취재원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이며 "희생자 가족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은 사건 현장인..."은 집단 취재원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다.

위 두 유목은 빈도를 단순 합산하여 평균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취재원의 빈도는 기사의 길이에 영향을 받으며 기사의 길이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취재원 또는 어떤 제시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는지 알게 해주는 지표를 만들었다. 아래의 지표에서 (1)과 (2)의 분수식은 -1에서 +1까지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개인' 취재원과 취재원의 '직접적' 제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1에 가까울수록 '집단' 취재원과 취재원의 '간접적' 제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의미한다.

$$\text{개인 취재원 대 집단 취재원} = \left(\frac{(\text{개인} - \text{집단})}{(\text{개인} + \text{집단})} \right) \dots\dots\dots (1)$$

$$\text{직접적 제시 대 간접적 제시} = \left(\frac{(\text{직접적} - \text{간접적})}{(\text{직접적} + \text{간접적})} \right) \dots\dots\dots (2)$$

③ 서술방식: 개인 중심적 서술과 공동체 중심적 서술

개인 중심적 서술은 기사가 특정 개인을 거론하면서 시작하여 그를 겨냥하거나 그의 언행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논지가 전개되는 경우다. 공동체 중심적 서술은 이슈를 개인보다 포괄적인 차원(사회, 국가, 세계 등)에서 접근하거나 이슈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지가 전개된 경우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학자나 전문가 등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기사가 전개되거나 손해를 본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기술된 경우는 개인 중심적 서술로 코딩했다. 반면에 "정부는 은행권의 지급준비 상황을 탄력적으로 관리해 시중 유동성의 안정을 기하고 외환시장의 과도한 급변동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와 같이 정부 또는 금융 감독기관의 평가나 대응책을 중심으로 기술한 경우는 공동체 중심적 서술로 간주했다. 북핵 이슈의 경우, '부시 미 대통령',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 수석대표', '노무현 대통령', '천영우 한국 측 수석대표' 등과 같은 핵심 인사들의 진단을 중심으로 기술된 기사는 개인 중심적 서술로 간주했다. 그러나 6자회담 참여국의 북핵 신고를 둘러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된 기사는 공동체 중심적 서술로 코딩했다.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의 경우, 조승희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 것은 개인 중심적 서술로 코딩했으며 '미국사회', '총기관리 시스템', '총기규제법안(gun control law)', '정신건강프로그램(mental health programs)' 등 관련 사회제도를 중심으로 서술된 기사는 공동체 중심적 서술로 간주했다. 이 유목의 코딩은 대개 기사의 첫 단락에서 결정되었는데, 사실이나 칼럼

은 짧기 때문에 거의 모두 첫 단락의 서술방식이 전체를 좌우했다. 첫 단락 이후에 그와 상이한 서술방식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기사를 지배하지 않는 한 첫 단락의 서술방식에 따라 코딩했다.

④ 귀인 패턴: 개인내부 귀인, 상황 귀인, 개인내부와 상황 간의 상호작용 귀인

기사가 이슈의 원인을 주요 주체의 내부적 문제로 설명하면 개인내부 귀인으로, 주체와 관계된 당사자(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로 설명하면 상황 귀인으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면 상호작용 귀인으로 코딩했다. 아래의 예는 귀인이 명시된 문장이나 문구를 보여주지만, 기사 전체든 기사의 한 단락이든 귀인을 다룬 부분은 그런 문장이나 문구로 전개되거나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그런 문장이나 문구를 일종의 논조로 보고 코딩해도 별 무리가 없었다. 단, 복수의 문장을 통해 개인내부 귀인과 상황 귀인이 동시에 표현되었을 경우에는 두 귀인이 동수를 이루는 경우에 한해 상호작용 귀인으로 코딩했다. 예를 들어, ‘초대형 투자는 행들의 경영부실로 촉발된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내부귀인으로, ‘신자유주의적 금융규제 완화의 귀결’은 상황 귀인으로 코딩했다. 북핵 이슈에서, “In exchange for its partial compliance, Kim Jong Il’s regime will get everything promised it by the international coalition...”은 내부귀인으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不能化) 및 핵 신고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과 맞바꾸기로 했다”는 상황 귀인으로 코딩했다. 또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함이다”는 상호작용 귀인으로 코딩했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 조승희의 개인적인 문제(이민자 2세, 정신질환 등)를 거론한 경우는 개인내부 귀인으로, ‘총기관리 시스템’, ‘총기규제 법안’, ‘정신건강프로그램’ 등을 강조한 경우는 상황 귀인으로 코딩했다.

⑤ 이슈에 대한 입장: 단일입장(긍정적/부정적), 양비론적 입장

이슈와 관련된 여러 주체 중에서 하나를 겨냥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취한 기사는 단일입장으로, 복수의 주체를 모두 비판한 경우는 양비론적 입장으로 간주했다. 귀인 패턴 유목과 마찬가지로, 아래에 소개된 문장이나 문구는 이 유목을 결정하는 논조로 보아도 무방했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What the pessimists ignore is that fundamentals of the U.S. economy remain strong”은 긍정적 입장으로 코딩했다. 북핵 이슈에서, ‘대북봉쇄, 안보리의 결의’와 같이 이해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은 부정적 입장으로 코딩했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 ‘참사의 충격, 전 세계가 경악..., 버지니아공대 학살’은 부정적 입장으로 코딩했다. 이 연구의 세 이슈는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양비론적이었으며 긍정적 입장은 극히 적었고 양시론적 입장은 전무했다.

⑥ 이슈발생의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과 불가능

이 유목은 기사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경우는 물론이고 관련 내용이 서술되는 시제를 단서로 삼아 코딩했다. 기사가 과거 사실이나 행적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건발생을 연결지

은 경우는 예측 가능으로 코딩했다. 미국 금융위기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규제 완화, 투자 은행의 금융부실 등이 낳은...”은 예측 가능으로 코딩했다. 북핵 이슈에서, “But imperfect may be all one can expect after Mr. Bush wasted so much time”은 ‘expect’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건의 배경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으로 코딩했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 “A teacher referred him to counseling, and even his fellow students saw signs of dangerous disturbance. ‘Cho’s plays...had really twisted, macabre violence,’ writes former classmate Ian McFarlane”은 예측 가능으로 코딩했다. 반면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스스로를 일궈낸 다른 많은 동포들의 경우를 생각하면 조씨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들 것이다”는 예측 불가능으로 코딩했다.

(3) 코더 간 신뢰도

저자 중 1명과 언론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학생 1명은 30개의 기사(전체의 11%)를 무작위 추출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검증했다. 서술방식 유목의 코헨 카파(Cohen’s Kappa) 값은 .74, 귀인패턴은 .87, 이슈에 대한 입장은 .83, 이슈발생의 예측 가능성은 .92였다. 취재원 유형과 취재원 제시방식 유목은 코더 간 신뢰도를 사후에 검증하지 않고, 사전조율 과정을 통해 확보했다. 그 이유는 기사에서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해야 할 코딩의 단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사전조율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코더들이 각 기사에서 찾아낸 취재원의 절대빈도를 맞춰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각 취재원에 대해 유형과 제시방식 등 2개 유목을 코딩한 결과를 맞춰보는 것이었다. 첫 단계에서 두 코더는 각자 기사에서 찾아낸 취재원의 수가 ± 2 의 오차범위로 일치할 때까지 계속 모의 코딩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기준이 충족된 후의 검증과정으로, 두 코더는 취재원 유형에 대한 코더 간 신뢰도가 .80에 이를 때까지 계속 모의 코딩했다. 취재원 제시방식 유목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됐다. 이런 사전조율을 통해 코더 간 신뢰도가 .80까지 확보된 후에 실제 코딩이 실시됐다.

4. 연구결과

1) 취재원 유형

<연구문제 1>은 한미 신문의 의견기사는 취재원 유형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세 이슈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표 1> 참조).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 한국 신문은 집단 취재원을 개인 취재원보다 더 많이 사용했으며 미국 신문은 개인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한다. 미국 금융위기에서는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이 모두 집단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 경향은 한국 신문이 미국 신문보다 더 강했다. 미국

〈표 1〉 개인 취재원과 집단 취재원

	한국 신문 n=125	미국 신문 n=142	t 값	p
북핵 이슈	-.34(.45) n=69	-.55(.35) n=57	2.904 ^w	.004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27(.27) n=23	.02(.41) n=49	-3.675 ^w	.000
미국 금융위기	-.38(.48) n=33	-.08(.60) n=36	-2.269	.026

주1: +1에 가까울수록 개인 취재원을, -1에 가까울수록 집단 취재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이다.

주2: ^w는 Welch-Aspin 검정 값이다. 북핵 이슈와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의 의견기사에 대해 오차변량의 동질성 검증을 해본 결과, 등분산 가정이 확보되지 않아서 대안적 방법으로 비모수 통계분석 방법인 Welch-Aspin 검정을 이용했다.

주3: 북핵, 버지니아 공대, 미국 금융위기의 df값은 각각 123, 615, 62, 022, 67이다.

신문도 집단 취재원을 개인 취재원보다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부분적으로 상응한다. 북핵 이슈의 경우,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은 모두 집단 취재원을 개인 취재원보다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 경향은 미국 신문이 한국 신문보다 더 강했다. 이 결과는 문화심리학의 논지와 상응하지 않는다.

2) 취재원 제시방식

<연구문제 2>는 한미 신문 의견기사는 취재원 제시방식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이슈는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뿐이었다(<표 2> 참조).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표 2〉 취재원의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한국 신문 n=125	미국 신문 n=142	t 값	p
북핵 이슈	.46(.33) n=69	.39(.34) n=57	1.378	.171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05(.31) n=23	.36(.35) n=49	-4.732	.000
미국 금융위기	.60(.42) n=33	.47(.42) n=36	1.235	.221

주1: +1에 가까울수록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1에 가까울수록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는 의미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이다.

주2: 북핵, 버지니아 공대, 미국 금융위기의 df값은 각각 67, 70, 67이다.

에서 한국 신문은 취재원을 간접적으로, 미국 신문은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한다. 북핵 이슈와 미국 금융위기의 경우, 한미 신문은 모두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신문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지 않는다.

3) 서술방식

<연구문제 3>은 한미 신문의 의견기사는 서술방식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한국 신문 기사 125개, 미국 신문 기사 142개 중에서 이 연구문제에 적합했던 기사는 각각 122개와 140개다(<표 3> 참조).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과 미국 금융위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 한국 신문은 공동체 중심적 서술이 개인 중심적 서술보다 훨씬 더 많았고, 미국 신문은 개인 중심적 서술이 조금 더 많았다. 이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한다. 미국 금융위기의 경우, 한국 신문은 모두 공동체 중심적 서술이었으며 미국 신문은 약 7대 3의 비율로 공동체 중심적 서술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 신문도 공동체 중심적 서술이 개인 중심적 서술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부분적으로 상응한다. 북핵 이슈에서는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이 유의미한 차이 없이 모두 공동체 중심적 서술 경향을 보여,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표 3〉 개인 중심적 서술과 공동체 중심적 서술

		한국 신문 n=122	미국 신문 n=140	χ^2	p
북핵 이슈	개인 중심	2(2.9%)	4(7.0%)	1.128	.260
	공동체 중심	66(97.1%)	53(93.0%)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개인 중심	3(14.3%)	25(53.2%)	9.071	.002
	공동체 중심	18(85.7%)	22(46.8%)		
미국 금융위기	개인 중심	0(0.0%)	10(27.8%)	10.720	.001
	공동체 중심	33(100.0%)	26(72.2%)		

4) 귀인 패턴

<연구문제 4>는 한미 신문의 의견기사는 귀인패턴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문제에 적합했던 한국 신문 기사는 112개, 미국 신문 기사는 134개다(<표 4> 참조). 북핵 이슈와 버지니아공대 총

〈표 4〉 개인내부 귀인과 개인내부-상황 간 상호작용 귀인

		한국 신문 n=112	미국 신문 n=134	χ^2	p
북핵 이슈	개인내부	18(26.9%)	18(32.1%)	10.734	.005
	상황	14(20.9%)	24(42.9%)		
	상호작용	35(52.2%)	14(25.0%)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개인내부	7(33.3%)	16(36.4%)	10.944	.004
	상황	2(9.5%)	19(43.2%)		
	상호작용	12(57.1%)	9(20.5%)		
미국 금융위기	개인내부	7(29.2%)	12(35.3%)	1.674	.433
	상황	2(8.3%)	6(17.6%)		
	상호작용	15(62.5%)	16(47.1%)		

기사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 두 이슈에서 한국 신문은 이슈의 원인을 주요 주체의 개인내부 요인과 상황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미국 신문은 개인내부 또는 상황 요인으로 판단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사건을 개인과 상황의 복합적 작용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화심리학의 논지와 상응한다. 하지만 미국 신문은 개인내부 요인보다 상황 요인으로 판단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이슈에 대한 분석결과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전적으로 상응하기보다는 한국 신문에 한해 부분적으로 상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한미 신문 모두 상호작용 요인으로 판단한 경우가 많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지 않는다.

5) 이슈에 대한 입장

<연구문제 5>는 한미 신문의 의견기사는 이슈에 대한 입장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문제에 적합했던 한국 신문 기사는 121개, 미국 신문 기사는 138개다(<표 5> 참조).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즉 미국 신문은 긍정이나 부정 중에서 한 가지 입장을 보인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한국 신문에서는 양비론적 입장을 보인 기사가 미국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한국 신문도 긍정 또는 부정의 단일 입장의 기사가 양비론적 입장의 기사보다 훨씬 더 많았으므로, 위 결과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부분적으로 상응한다. 북핵 이슈와 미국 금융위기의 경우, 한미 신문에서 모두 단일 입장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유의미한 차이도 없어서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표 5〉 단일입장과 양비론적 입장

		한국 신문 n=121	미국 신문 n=138	χ^2	p
북핵 이슈	단일입장(긍정/부정)	58(86.6%)	49(87.5%)	.023	.548
	양비론적 입장	9(13.4%)	7(12.5%)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단일입장(긍정/부정)	17(81.0%)	45(97.8%)	5.944	.031
	양비론적 입장	4(19.0%)	1(2.2%)		
미국 금융위기	단일입장(긍정/부정)	32(97.0%)	36(100.0%)	1.170	.478
	양비론적 입장	1(3.0%)	0(0.0%)		

주: '단일입장'은 긍정적 입장을 보인 경우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경우를 단순 합산한 빈도다.

6) 사건 발생의 예측 가능성

<연구문제 6>는 한미 신문의 의견기사는 이슈발생 예측 가능성의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 분포는 이슈별로 상이한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문제에 적합했던 한국 신문 기사는 119개, 미국 신문은 134개다(<표 6> 참조). 북핵 이슈와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 두 이슈에서 모두 한국 신문은 사건 발생이 예측 가능했다는 판단을 압도적으로 많이 했으며, 미국 신문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경우가 미세하게 더 많았다. 이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한다. 미국 금융위기에서는 한국 신문과 미국 신문이 모두 사건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지 않는다.

〈표 6〉 후견지명 효과

		한국 신문 n=119	미국 신문 n=134	χ^2	p
북핵 이슈	예측 가능	56(84.8%)	27(48.2%)	18.695	.000
	예측 불가능	10(15.2%)	29(51.8%)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예측 가능	19(86.4%)	21(48.8%)	8.659	.003
	예측 불가능	3(13.6%)	22(51.2%)		
미국 금융위기	예측 가능	8(25.8%)	12(34.3%)	.560	.317
	예측 불가능	23(74.2%)	23(65.7%)		

5. 요약과 토론

이 연구는 한미 신문의 차이가 문화심리학적 이론 틀을 통해 얼마나 설명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유목을 개발하고 3개의 이슈에 대한 의견 기사를 비교했다. 총 18개의 분석결과 중에서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한 것은 5개, 부분적으로 상응한 것은 5개, 상응하지 않은 것은 8개였다.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는 결과는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의 취재원 유형, 취재원 제시방식, 서술방식, 사건발생의 예측 가능성(후견지명 효과) 그리고 복핵 이슈의 사건발생 예측 가능성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슈 중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이, 유목 중에서는 사건발생의 예측 가능성이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가장 근접했다.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부분적으로 상응하는 결과는 취재원 유형(미국 금융위기), 서술방식(미국 금융위기), 귀인패턴(복핵 이슈,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 이슈에 대한 입장(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 발견됐다.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하지 않는 결과는 취재원 유형(복핵 이슈), 취재원 제시방식(복핵 이슈, 미국 금융위기), 서술방식(복핵 이슈), 귀인패턴(미국 금융위기), 이슈에 대한 입장(복핵 이슈, 미국 금융위기), 후견지명 효과(미국 금융위기)에서 발견됐다. 전체적으로 문화심리학적 논지의 설명력은 제한적이었고, 이슈에 따라 상이하면서도 복잡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기자의 프로페셔널리즘과 기사를 둘러싼 언론조직을 중심으로 뉴스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했던 반면에 문화심리학적 논지는 기자의 인지나 사고과정에 중점을 두는 설명방식이다. 선행연구가 저널리즘 관행 중심의 전통적 관점이라면 문화심리학적 논지는 철저히 비관행적 관점에 입각해있다. 이렇게 보면, 이 연구는 문화심리학적 관점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 저널리즘 관행 관점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 두 관점이 경쟁하는 경우를 동시에 발견했다. 이런 복합성은 이 연구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을 보인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을 통해 잘 설명된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을 다룬 한국 신문의 의견기사는 집단 취재원을 이용하며 취재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며 기사를 공동체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대로 미국 신문은 개인 취재원을 이용하며 취재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며 기사를 개인 중심으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 신문은 사건이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언급한 경우가 많았지만 미국 신문은 그렇지 않았다. 또 한국 신문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귀인패턴과 이슈에 대한 입장에서 문화심리학적 논지와 상응했다. 문화심리학적 논지가 유독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과 부합했던 것은 사건의 독특한 속성 때문으로 보인다.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은 순식간에 발생하고 단기간에 마무리된 국지적 이슈일 뿐 아니라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원인제공자를 단일 인물로 특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시의성을 중시해야 하는 뉴스라는 영역의, 그리고 해석과 판단을 명시해야 하는 의견기사라는 장르의 필자들은 사건발생이라는 예기치 않은 자극에 대해 평소의 습관적인 반응을 조건반사 식으로 드러냈을 가능성이 크다. 필자의 사고습관이 가감 없이 드러날 수 있는 속성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복핵 이슈와 미국 금융위기는 장기간, 그것도 국제적으로 논의됐던 이슈다. 또 이

두 이슈는 사건의 주요 주체를 한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복수의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의견기사의 필자들은 이런 속성의 이슈를 다룰 때 해석 공동체(interpretive community)가 되어 이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인적 판단과 해석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의든 타의든 제한을 받게 된다(Zelizer, 1993). 특히 북핵 이슈에는 국제정치의 오랜 담론이나 정치이념, 국가이익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Bennett, Lawrence, & Livingston, 2006 참조), 미국 금융 위기는 세계경제라는 거시적인 틀 속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김성해 · 안병익, 2007), 의견기사의 필자들이 이슈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문화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개인 본연의 사고습관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부분적으로 또는 압도적으로 저널리즘 관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니스벳(Nisbett, 2003)은 문화심리학의 논지가 실험실의 산물이어서 현실에서도 그러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이의제기를 인정하면서도 서양인과 동양인이 상이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생활의 다양한 실례를 제시했다. 이처럼 문화심리학은 서양인과 동양인의 사고습관 차이가 인지, 태도, 행동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 적어도 의견기사라는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준다. 의견기사에서는 버지니아공대 총기사건에서처럼 사고습관의 차이가 행동(기사작성)의 차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의견 기사를 분석했기 때문에 의견기사 필자들의 인식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의견기사의 필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동서양의 사고습관에 따라 이슈를 인지했음에도 기사작성 단계에서는 그와 일관되지 않는 행동을 취했을 수 있다. 자신의 판단과 해석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밝혀야 하는 저널리즘 현실이 인지와 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끊었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에 불과하다.

이 연구는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인지과정의 차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뉴스연구에 제안했으며 문화심리학에는 이슈의 속성이라는 잠정적 조건변인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왔던 동양 집단주의 대 서양 개인주의 식의 포괄적인 틀을 구체화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 것도 이 연구의 강점이라 할 만하다. 이 연구가 전체적으로 상충하는 결과를 보인 것은 기자와 언론이 국가나 문화권별로 상이한 동시에 현실 구성방식이 비슷하며 세계관을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는 학자들의 이견(異見)과 맥을 같이 한다(Gans, 1980, Stocking & Gross, 1989; Winfield, Mizuno, & Beaudoin, 2000). 이 연구는 뉴스를 저널리즘 규범 측면에서 파악했던 그간의 학풍과 기자의 인지 과정에 주목하는 문화심리학적 학풍이 혼합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시도는 좁게는 한미 언론의 차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방식을 제공하고, 넓게는 뉴스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문화심리학자들은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문화적 상대주의로 간주하기보다는 두 문화가 서로 배워서 자기 단점을 보완하고 수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Nisbett, 2003). 저널리즘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서양인의 형식논리와 기본적인 귀인 오류, 양자택일 논리는 분석적 사고에 기초한 과학적 판단이지만, 그 때문에 기자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과신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코바치와 로젠스틸(Kovach &

Rosenstiel, 2007)은 기자들에게 이슈와 관련하여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자신이 수집한 정보와 상충하는 또 다른 주장은 없는지 자문해보라고 권고했다. 변증법적 논증과 상호작용 귀인 등 동양인의 종합적인 사고가 서양 기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동양 기자들은 서양인의 비모순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 모순을 무리 없이 수용하는 동양인의 사고습관은 기자들이 이슈의 원인과 책임을 두루뭉술하게 진단하도록 부추긴다. 니스벳(Nisbett, 2003)은 모순에 대해 덜 민감한 한국인의 사고습관은 과학적 사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취재와 보도의 과학화가 집중 거론되는 요즘의 상황에서 이 지적인 의미 심장하다(Kovach & Rosenstiel, 2007). 이런 상호학습은 저널리즘 관행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박성희(2004)의 주장처럼 저널리즘 관행 개선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면, 관행 개선의 유효한 방법 중 하나인 기자 교육에 문화심리학적 논의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수용자에게도 함의가 있다. 이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한미 저널리즘의 차이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미시적으로는 양국 언론의 뉴스에 대한 비판적 독해에 도움을 준다.

이 연구는 문화심리학 이론 틀로 뉴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된 유목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다소 미약할 수 있다. 이슈별로 상이한 결과, 특히 언론에 장기간 노출되고 복잡한 사안에서 문화심리학적 논지의 설명력이 약화되거나 침잠된다는 것은 이 연구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저널리즘과 문화심리학 양쪽에서 추가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과제다. 따라서 더 정교하게 설계된 유사 연구가 다양한 속성의 이슈를 대상으로 누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한 문화권 내에서의 국가 간 비교, 또 각 문화권에 복수의 국가를 포함하여 문화권끼리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김성해 · 안병익 (2007). 『글로벌시대, 금융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수정 · 조은희 (2005). 생명과학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09~139.
- 김재영 · 양선희 (2007). 한·미 신문의 윤리적 실천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243~266.
- 남재일 (2004). 『한국 신문의 객관주의 아비투스: 형식적 사실주의의 전략적 의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남재일 · 박재영 (2007). 『한국 기획기사와 미국 피쳐스토리 비교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박성희 (2004). 『신문 사회면 비교분석』. 서울: 미디어연구소.
- 박재영 · 이완수 (2007a). 인용(quotation)과 취재원 적시(attribution)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박재영 · 이완수 (2007b). 『한국 신문의 1면 기사: 뉴스평가지수를 적용한 신문별, 연도별 비교(1990~2007년)』.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건호 (2007). 『한·미 신문의 기사 형식과 내용』.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완수 · 심재웅 · 심재철 (2008). 미디어 현저성과 프레임 변화의 역동적 과정: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1호, 386~412.
- 이재경 (2006). 한미 신문의 대통령 취재관행 비교: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언론과 사회』, 14권 4호, 37~69.
- 이재경 (2007). 한국 언론과 글로벌 스탠더드. 임상원 외.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 (183~232쪽). 서울: 나남.
- Bagley, C. (1995). Field independence in children in group-oriented cultures: Comparisons from China, Japan, and North Americ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523~525.
- Basseches, M. (1980). Dialectical schemata: A framework for the empirical study of the development of dialectical thinking. *Human Development*, 23, 400~421.
- Bennett, W. L., Lawrence, R. G., & Livingston, S. (2006). None dare call it torture: Indexing and the limits of press independence in the Abu Ghraib scandal. *Journal of Communication*, 56(3), 467~485.
- Cho, B., Kwon, U., Gentry, J. W., Jun, S., & Kropp, F. (1999). Cultural values reflected in theme and execution: A comparative study of U.S. and Korean television commercials. *Journal of Advertising*, 28(4), 59~74.
- Cho, C. H., & Cheon, H. J. (2005).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interactivity on corporate web sit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outh Korea. *Journal of Advertising*, 34(2), 99~116.
- Choi, I., Dalal, R., Kim-Prieto, C., & Park, H. (2003). Culture and judgment of causal relev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46~59.
- Choi, I., & Nisbett, R. E. (1998). Situational salience and cultural difference in the correspondence bias and actor-observer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949~960.
- Choi, I., & Nisbett, R. E. (2000). Cultural psychology of surprise: Holistic theories and recognition of contra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6), 890~905.
- Choi, I., Nisbett, R. E., & Norenzayan, A. (1999). Causal attribution across cultures: Variation and univers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25(1), 47~63.
- Cousins, S. (1989). Culture and self hood in Japan and th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24~131.
- Gans, J. J. (1980).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Vintage.
- Gregory, J., & Miller, S. (1998). *Science in public: Communication, culture and credibility*. New York: Plenum.
- Gunaratne, S. A. (2000). *Handbook of the media in Asia*. London: Sage.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Garden City, NJ: Anchor Books/Doubleday.
- Han, S., & Shavitt, S. (1994). Persuasion and culture: Advertising appeal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societ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326~350.

- Hedden, T., Ketay, S., Aron, A., Markus, H. R., & Gabrieli, J. D. (2008). Cultural influences on neural substrates of attentional control. *Psychological Science*, 19(1), 12 ~ 17.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 ~ 24.
- Kim, H. S. (2001). Gatekeeping international news: A Q-methodological study of television journalis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 Kovach, B., & Rosenstiel T. (2007).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Leary, M. R. (1982). Hindsight distortion and the 1980 Presidential ele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257 ~ 263.
- Lippmann, W. (1922/1950). *Public opinion*. New York: Macmillan.
- Logan, R. A, Park, J., & Shin, J. (2004). Elite sources, context, and news topics: How two Korean newspapers covered a public health crisis. *Science Communication*, 25(4), 364 ~ 398.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 ~ 253.
- Morris, M. W., & Peng, K. (1994). Culture and cause: American and Chinese attributions for social and physic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949 ~ 971.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and why*. New York: Free Press.
- Nisbett, R. E., Peng, K. P.,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291 ~ 310.
- Oyserman, D., & Markus, H. R. (1990). Possible Selv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12 ~ 125.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New York: Longman.
- Siebert, F. S., Peterson, T., & Schramm, W. (1963). *Four theories of the press*. Chicago, IL: University of Illinois.
- Stocking, S. H., & Gross, P. H. (1989). *How do journalists think?: A proposal for the study of cognitive bias in newsmaking*.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 Winfield, B. H., Mizuno, T., & Beaudoin, C. E. (2000). Confucianism, collectivism and constitutions: Press systems in China and Japan. *Communication Law & Policy*, 5(3), 323 ~ 347.
- Witkin, H. A., Moore, C. A., Goodenough, D. R., & Cox, P. W. (1977). Field-dependent and field-independent cognitive styles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1), 1 ~ 64.
- Zax, M., & Takahashi, S. (1967). Cultural influences on response style: Comparisons of Japanese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1, 3 ~ 10.
- Zelizer, B. (1993). Journalists as interpretive communit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0, 219 ~ 237.

최초 투고일 2009년 2월 13일

게재 확정일 2009년 9월 19일

논문 수정일 2009년 9월 29일

The Culture-Induced Cognitiv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S. op-ed Writers

Jaeyung Park

Professor, School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Wan Soo Lee

Professor, Visual Communication, Dong Seo University

Sungjong Roh

Master, School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Korean and U.S. op-ed writers interpret the same issues differently. The present study employed cultural psychology as a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the cognitive differences found in op-ed articles of Korean and U.S. newspapers on three issues including North Korea nuclear, Virginia Tech massacre, and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Based on content analysis of op-ed articles, the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was supported in the Virginia Tech massacre issue in categories such as the type of news source, the way news source is introduced, and how the article is narrated. The cultural differences on hindsight bias were found in both issues of the North Korea nuclear and Virginia Tech massacre. The stance toward an issue was not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cultural psychology in all three issues. It seems that journalism studies are required to combine the established normative approach and cultural psychological approach for better understand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Korean and U.S. papers' op-ed articles. The findings are also discussed in relation to their practical implications, requesting mutual learning between the two cultural worlds of journalists. As the western journalists need to learn the oriental holistic thinking, the oriental journalists are necessary to learn the western analytic thinking and, in doing so, the culture-induced cognitive biases could be ruled out.

Key words : western individualism and oriental collectivism, routine ways of thinking, cultural psychology,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hindsight bias, op-ed articles, Korean and U.S. newspapers